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김 혜 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도 윤진하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6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김혜진

## 김혜진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윤진하\_\_\_\_\_인

심사위원\_\_\_\_\_김치년\_\_\_\_\_인

심사위원\_\_\_\_\_윤병윤\_\_\_\_\_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5년 6월

## 차 례

국문 요약 .....	iv
I. 서론 .....	1
II. 연구방법 .....	5
1. 연구대상 .....	5
2. 변수정의 .....	7
3. 자료 분석 방법 .....	10
III. 연구결과 .....	11
IV. 고찰 .....	35
V. 결론 .....	39
참고문헌 .....	40
부록 .....	43
영문초록 .....	52

## 표 차 례

표 1.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	12
표 2.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	14
표 3.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	16
표 4.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	19
표 5.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	22
표 6.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	25
표 7.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	28
표 8.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	31
표 9.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	34

## 그 립 차 례

그림 1. 연구 대상 구성 .....	6
----------------------	---

## 부 록 표 차 례

부록 표 1.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근무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44
부록 표 2.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5
부록 표 3.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근무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47
부록 표 4.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8
부록 표 5.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근무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50
부록 표 6.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1

## 국문요약

###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 1,315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근무환경은 안전성, 쾌적성,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통제하며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근무환경 요인은 직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제조업 종사자에게는 안전성이,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안전성과 쾌적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근로자,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적정 시간 근무자 등 안정적인 직업 조건을 가진 근로자는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직무만족 수준도 높았으며, 반대로 일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장시간 근무자 등은 근무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직무만족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 조건에 따라 근무환경 인식과 직무만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고려한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산업별·직업별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 방향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어:** 장애인 임금근로자, 직무만족, 근무환경, 제조업, 서비스업



## I.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행한 2024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41천 명으로, 2000년 958천 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1990년 도입 이후 지속 확대되고 있고, 제도에 기인하여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취업자는 전체인구 취업자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된 비율이 높고(백영은, 배현주, 2024), 장애인을 상대적으로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업종이 존재하는 등 산업 간 편차가 크다(김연아 등, 2021).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전체인구의 실업률 3.0%보다 높아,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장애인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고용 증가뿐 아니라, 장애인이 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Roessler, 2002), 이를 위해서는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김광자, 2011).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직무와 관련한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정 또는 정서적 상태이며(김복일, 2006),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은 고용 유지뿐 아니라 삶의 질과 직무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김수진,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무만족은 고용 지속성, 삶의 질, 이직 의도, 조직 몰입과 같은 다양한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결정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조직

내 상호작용, 직업적 특성 외에도 근무환경이 핵심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박자경, 김종진, 강용주, 2010; 오지원, 여영훈, 2021).

근무환경은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될 수 있고,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물리적, 화학적, 제도적 등 전반적인 작업 여건을 의미한다(이용원, 2016).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적인 근무환경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용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김지원, 2017).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패널조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변수를 사용해 근무환경을 규정하고 있다. 오지원 등(2021)은 근로 장애인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 유형에 따라 검증하였는데, 이때 근무환경을 물리적 근무환경(안전성, 쾌적성), 제도적 근무환경(4대보험과 복리후생 혜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도지혜 등(2020)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을 검증하였고 근무환경을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미란 등(2023)은 대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요인을 분석하였고 근무환경을 안전도와 쾌적도로 구분하였다. 김민영(2017)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 형태별로 직무만족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근무환경을 직장에서의 업무 배려, 장애인 편의시설, 차별 경험, 장애인 이해와 수용도로 구분하였다. 남수정 등(2013)은 직무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예측 요인을 검증하였으며 근무환경을 복리후생과 장애인 편의시설로 구분하였고, 박자경 등(2010)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분석하였고 물리적 환경을 장애인 편의시설, 근무환경 안전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3차조사)가 가장 최근의 자료였으며, 산업군별로 장애인의 고용 형태와 근무환경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근무 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신자료인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를 활용해 근무 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적 특성에 따라 근무 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 검토함으로써 장애인 노동시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일반적·직업적 특성 및 근무환경을 분석한다.

둘째,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일반적·직업적 특성 및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4-2025-0237)을 받았으며 동의 면제를 받은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종단면 조사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대상자는 4,577명이며, 본 연구에는 종사상 지위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라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1,52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관련 설문에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을 한 51명을 제외하고 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년)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1,315명(남성 1,108명, 여성 366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통계청 고시 제2018-390호 서비스업 분류 고시에 따라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16개 대분류를 서비스업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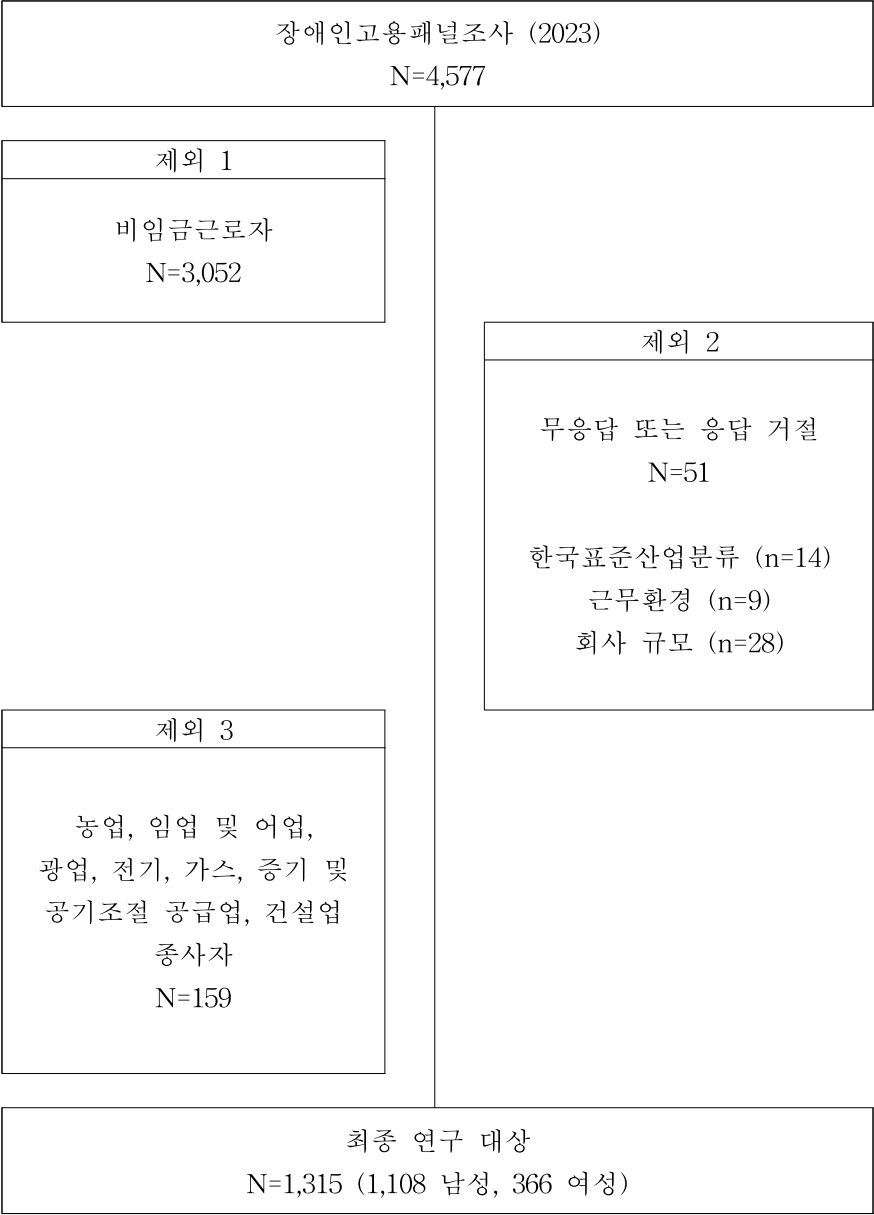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대상 구성

## 2. 변수의 정의

### 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장애정도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1세로 분류하였다.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였다.

### 2) 직업적 특성

직업적 특성은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 시간을 포함하였다.

회사 규모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99명, 100~299명, 300명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소득은 한 달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근무시간은 일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4시간, 5~8시간, 9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 3) 근무환경

근무환경은 근무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포함하였다.

근무환경의 안전성은 ‘근무하는 곳의 안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에 ‘매우 위험하다’ 또는 ‘위험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위험한 환경으로, ‘안전한 편이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안전한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근무환경의 쾌적성은 ‘근무하는 곳의 쾌적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항에 ‘전혀 쾌적하지 않다’ 또는 ‘쾌적하지 않은 편이다’로 응답한 경우는 쾌적하지 않은 환경으로, ‘쾌적한 편이다’와 ‘매우 쾌적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쾌적한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는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위험 요소를 선택하는 7개 문항에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개수를 측정하고 평균 이하일 경우 위험한 요소가 적은 것으로,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많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7개 위험 요소는 ‘정적인 자세,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신체적인 활동과 관련된 위험’, ‘추락, 감전, 미끄러짐 등 위험장소에서의 작업’, ‘프레스기, 분쇄기 등 위험한 기계, 기구’, ‘감정 노동, 직무 스트레스, 차별 등 정신적, 심리적 위험’, ‘소음, 진동, 고온/저온 등 물리적(환경적) 위험’, ‘염소, 산·알카리류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위험’, ‘바이러스, 혈액 등 생물학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사업장에 장애와 관련하여 어떤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항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개수를 측정하고 평균 이하일 경우 편의시설이 적은 것으로,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많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편의시설의 종류는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보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 차이 제거’, ‘높이 차이(단차)가 없는 출입문’,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양측 손잡이 설치 등)’, ‘복도/통로의 손잡이’, ‘계단



양측 손잡이(2층 이상 건물), ‘장애인용 승강기(2층 이상 건물’, ‘점자블록’, ‘비상벨, 경광등’ 총 10가지이다.

#### 4)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일자리(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문항에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 또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는 보통 이하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는 만족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직무만족 수준에 따른 개인적 특성, 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으며, 기대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단계적 회귀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모델1에서는 근무환경 요인만을 포함하여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모델2에서는 모델1에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장애정도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모델3은 모델2에 직업성 특성인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을 추가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으며, 기대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 R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 로 설정하였다.

### Ⅲ. 결 과

#### 1.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 1)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표 1은 1,315명의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 총 1,315명으로, 남성은 954명(72.55%), 여성은 361명(27.45%)으로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약 2.6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40~49세가 463명(35.21%), 50~59세가 324명(24.64%)으로 중·장년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88명(44.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 졸업 이상이 558명(42.43%)으로 뒤를 이었다.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916명(69.66%)으로 심한 장애 399명(30.3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회사 규모는 1~99명인 사업체에 1,046명(79.54%)이 종사하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922명(70.11%)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은 일 5~8시간이 949명(7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월 300만원 이상이 472명(35.89%), 200~299만원 434명(33%) 순이었다.

근무환경은 1,129명(85.86%)이 안전한 근무환경이라고 응답했으며, 1,000명(76.05%)이 쾌적한 근무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는 878명(66.77%)이 적은 편이라고 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많음이 700명(53.23%)이었고 적음이 615명(46.77%)으로 적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표 1.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변수		N	%
성별	남성	954	72.55
	여성	361	27.45
연령	평균연령(M±SD)	46.59±11.29	
	15~29세	121	9.20
	30~39세	238	18.10
	40~49세	463	35.21
	50~59세	324	24.64
	60~71세	169	12.85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69	12.86
	고등학교 졸업	588	44.71
	대학 졸업 이상	558	42.43
장애정도	심한 장애	399	30.34
	심하지 않은 장애	916	69.66
회사 규모	1~99명	1046	79.54
	100~299명	136	10.34
	300명 이상	133	10.1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922	70.11
	임시근로자	315	23.95
	일용근로자	78	5.94
소득	100만원 미만	152	11.57
	100~199만원	257	19.54
	200~299만원	434	33.00
	300만원 이상	472	35.89
근무시간	1~4시간	129	9.81
	5~8시간	949	72.17
	9시간 이상	237	18.02
근무환경의 안전성	위험	186	14.14
	안전	1129	85.86
근무환경의 쾌적성	불쾌	315	23.95
	쾌적	1000	76.05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많음	437	33.23
	적음	878	66.7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음	615	46.77
	많음	700	53.23

## 2)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표 2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 305명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성별은 남성이 263명(86.2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42명(13.77%)이었다. 연령은 40~49세가 123명(40.33%)으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가 89명(29.18%)으로 중·장년층 비율이 높았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71명(56.0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 이상도 92명(30.16%)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288명(74.75%)으로, 심한 장애 77명(25.25%)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회사 규모는 1~99명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16명(70.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255명(83.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월 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149명(48.85%), 근무시간은 5~8시간 251명(82.3%)이 가장 많았다.

근무환경은 안전하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245명(80.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쾌적하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210명(68.85%)으로 불쾌하다고 응답한 95명(31.15%)보다 약 2.2배 많았다.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적다고 응답한 근로자 179명(58.69%), 많다고 응답한 근로자 126명(41.31%)이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적다고 응답한 근로자 176명(57.7%), 많다고 응답한 근로자 129명(42.3%)으로 나타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2.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변수		N	%
성별	남성	263	86.23
	여성	42	13.77
연령	평균연령(M±SD)	46.55±10.25	
	15~29세	18	5.90
	30~39세	44	14.43
	40~49세	123	40.33
	50~59세	89	29.18
	60~71세	31	10.16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2	13.77
	고등학교 졸업	171	56.07
	대학 졸업 이상	92	30.16
장애정도	심한 장애	77	25.25
	심하지 않은 장애	228	74.75
회사 규모	1~99명	216	70.82
	100~299명	37	12.13
	300명 이상	52	17.0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55	83.61
	임시근로자	33	10.82
	일용근로자	17	5.57
소득	100만원 미만	24	7.87
	100~199만원	33	10.82
	200~299만원	99	32.46
	300만원 이상	149	48.85
근무시간	1~4시간	10	3.27
	5~8시간	251	82.30
	9시간 이상	44	14.43
근무환경의	위험	60	19.67
안전성	안전	245	80.33
근무환경의	불쾌	95	31.15
쾌적성	쾌적	210	68.85
근무환경의	많음	126	41.31
위험 요소	적음	179	58.69
장애인 편의시설	적음	176	57.70
설치	많음	129	42.30

### 3)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표 3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 1,010명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성별은 남성이 691명(68.42%)으로 여성 319명(31.58%)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연령은 40~49세 340명(33.66%), 50~59세 235명(23.27%) 순으로 중·장년층 비율이 높았다.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466명(4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417명(41.29%)으로 서비스업에서는 고학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장애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688명(68.12%), 심한 장애가 322명(31.88%)으로 심한 장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회사 규모는 1~99명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830명(82.1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67명(66.04%), 임시근로자 282명(27.92%), 일용근로자 61명(6.04%)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 평균 소득은 200~299만원 335명(33.17%)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23명(31.98%), 100~199만원 224명(22.18%) 순이었으며, 근무시간은 5~8시간이 698명(69.11%)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환경의 안전성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명(87.52%)으로 매우 높았으며, 쾌적성은 쾌적하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790명(78.22%)으로 불쾌하다고 응답한 근로자 220명(21.78%)보다 약 3.6배 높았다.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적다고 응답한 근로자 699명(69.21%), 많다고 응답한 근로자 311명(30.79%)이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많음이 571명(56.53%), 적음이 439명(43.47%)으로 나타났다.

표 3.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

변수		N	%
성별	남성	691	68.42
	여성	319	31.58
연령	평균연령(M±SD)	45.8±11.79	
	15~29세	103	10.20
	30~39세	194	19.21
	40~49세	340	33.66
	50~59세	235	23.27
	60~71세	138	13.66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7	12.57
	고등학교 졸업	417	41.29
	대학 졸업 이상	466	46.14
장애정도	심한 장애	322	31.88
	심하지 않은 장애	688	68.12
회사 규모	1~99명	830	82.18
	100~299명	99	9.80
	300명 이상	81	8.0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667	66.04
	임시근로자	282	27.92
	일용근로자	61	6.04
소득	100만원 미만	128	12.67
	100~199만원	224	22.18
	200~299만원	335	33.17
	300만원 이상	323	31.98
근무시간	1~4시간	119	11.78
	5~8시간	698	69.11
	9시간 이상	193	19.11
근무환경의	위험	126	12.48
안전성	안전	884	87.52
근무환경의	불쾌	220	21.78
쾌적성	쾌적	790	78.22
근무환경의	많음	311	30.79
위험 요소	적음	699	69.21
장애인 편의시설	적음	439	43.47
설치	많음	571	56.53



## 2.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 1)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표 4는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및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을 분석한 것이다.

직무만족에 대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 최종학력이, 직업적 특성에서는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이, 근무환경에서는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은 15~29세가 68.6%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30~39세 60.92%, 40~49세 58.32%, 50~59세 54.01% 순으로 감소하였다. 60~71세는 직무만족이 보통 이하인 비율이 53.85%로 직무만족 수준이 가장 낮았다( $p=0.001$ ).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대학 졸업 이상은 66.67%, 고등학교 졸업은 52.72%, 중학교 졸업 이하는 40.83%의 만족도를 보였다( $p<0.001$ ).

회사 규모에 따른 직무만족은 300명 이상이 72.18%로 가장 높았으며, 100~299명 61.03%, 1~99명 54.68% 순으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은 상용근로자 62.26%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근로자 48.25%, 일용근로자 32.05% 순으로 고용안정적일 경우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소득에 따른 직무만족은 300만원 이상이 70.34%, 200~299만원 53.23%, 100~199만원 47.86%, 100만원 미만은 42.76% 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만족은 5~8시간이 61.43%, 1~4시간 48.84%, 9시간 이상이 44.3% 순으로 적정 근무시간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61.47%, 위험하다고 응답한 30.65%보다 직무만족이 높았고( $p<0.001$ ), 쾌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4.8%로, 불쾌하다고 응답한 32.7%보다 높았다( $p<0.001$ ).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가 적다고 응답한 경우는 63.55%로, 위험 요소가 많다고 응답한 44.16%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p<0.001$ ),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4.29%, 적다고 응답한 48.94%보다 직무만족이 높았다( $p<0.001$ ).

**표 4.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변수		직무만족				P-value
		만족		보통 이하		
		N	%	N	%	
성별	남성	537	56.29	417	43.71	0.360
	여성	214	59.28	147	40.72	
연령	15~29세	83	68.60	38	31.40	0.001
	30~39세	145	60.92	93	39.08	
	40~49세	270	58.32	193	41.68	
	50~59세	175	54.01	149	45.99	
	60~71세	78	46.15	91	53.85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9	40.83	100	59.17	<0.001
	고등 학교 졸업	310	52.72	278	47.28	
	대학 졸업 이상	372	66.67	186	33.33	
장애 정도	심한 장애	231	57.89	168	42.11	0.750
	심하지 않은 장애	520	56.77	396	43.23	
회사 규모	1~99명	572	54.68	474	45.32	<0.001
	100~299명	83	61.03	53	38.97	
	300명 이상	96	72.18	37	27.82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574	62.26	348	37.74	<0.001
	임시근로자	152	48.25	163	51.75	
	일용근로자	25	32.05	53	67.95	
소득	100만원 미만	65	42.76	87	57.24	<0.001
	100~199만원	123	47.86	134	52.14	
	200~299만원	231	53.23	203	46.77	
	300만원 이상	332	70.34	140	29.66	
근무시간	1~4시간	63	48.84	66	51.16	<0.001
	5~8시간	583	61.43	366	38.57	
	9시간 이상	105	44.30	132	55.70	
근무환경의 안전성	위험	57	30.65	129	69.35	<0.001
	안전	694	61.47	435	38.53	
근무환경의 쾌적성	불쾌	103	32.70	212	67.30	<0.001
	쾌적	648	64.80	352	35.20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많음	193	44.16	244	55.84	<0.001
	적음	558	63.55	320	36.4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음	301	48.94	314	51.06	<0.001
	많음	450	64.29	250	35.71	

## 2)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표 5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및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을 분석한 것이다.

직무만족에 대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과 피서의 정확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에서는 연령, 최종학력이, 직업적 특성에서는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이, 근무환경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은 50~59세가 59.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5~29세 55.56%, 30~39세 54.55%, 40~49세 52.85%, 60~71세 25.81% 순이었다( $p=0.029$ ).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은 대학 졸업 이상이 60.8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51.46%, 중학교 졸업 이하가 38.1%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 $p=0.046$ ).

회사 규모에 따른 직무만족은 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때 71.15%로 가장 높았으며, 1~99명 49.07%, 100~299명 45.95% 순으로 나타났다( $p=0.012$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은 상용근로자가 57.65%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근로자가 27.27%, 일용근로자가 23.53%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이 안정적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 $p<0.001$ ).

소득에 따른 직무만족은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66.44%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 54.17%, 200~299만원 37.37%, 100~199만원 33.33% 순으로 높았다( $p<0.001$ ).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56.73%가 직무에 만족했으며, 위험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5%에 불과했다( $p=0.004$ ). 근무환경이 쾌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9.52%가 직무에 만족했으며, 불쾌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84%에 불과했다( $p<0.001$ ).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가 적다고 응답한 경우는 58.66%가

직무에 만족했으며, 위험 요소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43.65%였다( $p=0.001$ ).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3.57%가 직무에 만족했으며, 편의  
시설이 적다고 응답한 경우는 44.32%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표 5.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변수		직무만족				P-value
		만족		보통 이하		
		N	%	N	%	
성별	남성	143	54.37	120	45.63	0.132
	여성	17	40.48	25	59.52	
연령	15~29세	10	55.56	8	44.44	0.029
	30~39세	24	54.55	20	45.45	
	40~49세	65	52.85	58	47.15	
	50~59세	53	59.55	36	40.45	
	60~71세	8	25.81	23	74.19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6	38.10	26	61.90	0.046
	고등학교 졸업	88	51.46	83	48.54	
	대학 졸업 이상	56	60.87	36	39.13	
장애 정도	심한 장애	40	51.95	37	48.05	0.999
	심하지 않은 장애	120	52.63	108	47.37	
회사 규모	1~99명	106	49.07	110	50.93	0.012
	100~299명	17	45.95	20	54.05	
	300명 이상	37	71.15	15	28.8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47	57.65	108	42.35	<0.001
	임시근로자	9	27.27	24	72.73	
	일용근로자	4	23.53	13	76.47	
소득	100만원 미만	13	54.17	11	45.83	<0.001
	100~199만원	11	33.33	22	66.67	
	200~299만원	37	37.37	62	62.63	
	300만원 이상	99	66.44	50	33.56	
근무시간	1~4시간	6	60.00	4	40.00	0.241
	5~8시간	136	54.18	115	45.82	
	9시간 이상	18	40.91	26	59.09	
근무환경의 안전성	위험	21	35.00	39	65.00	0.004
	안전	139	56.73	106	43.27	
근무환경의 쾌적성	불쾌	35	36.84	60	63.16	<0.001
	쾌적	125	59.52	85	40.48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많음	55	43.65	71	56.35	0.001
	적음	105	58.66	74	41.3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음	78	44.32	98	55.68	0.001
	많음	82	63.57	47	36.43	

### 3)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표 6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및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을 분석한 것이다.

직무만족에 대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은 연령, 최종학력이, 직업적 특성은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이, 근무환경은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은 15~29세가 70.87%로 가장 높았으며, 30~39세가 62.37%, 40~49세 60.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50~59세는 51.91%, 60~71세는 50.72%로 중·장년에서 직무만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p=0.003$ ).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은 대학교 졸업이 67.81%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53.24%, 중학교 졸업 이하 41.7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p<0.001$ ).

회사 규모에 따른 직무만족은 300명 이상에서 72.84%, 100~299명 66.67%, 1~99명 56.14% 순으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직무만족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03$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은 상용근로자가 64.02%로 가장 높았으며, 임시근로자 50.71%, 일용근로자 34.43%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이 안정적인수록 직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소득에 따른 직무만족은 300만원 이상일 때 72.14%, 200~299만원 57.91%, 100~199만원 50%, 100만원 미만 40.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p<0.001$ ).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만족은 5~8시간이 64.04%로 가장 높았으며, 1~4시간 47.9%와 9시간 이상 45.08%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p<0.001$ ).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62.78%가 직무에 만족했으며, 위험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8.57%에 불과했다( $p<0.001$ ). 근무환경이 쾌적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66.2%가 직무에 만족했으며, 불쾌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0.91%로 나타났다( $p<0.001$ ).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가 적다고 응답한 경우는 64.81%가 직무에 만족했으며, 위험 요소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44.37%가 만족했다( $p<0.001$ ).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4.45%가 직무에 만족했으나 적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50.8%로 나타났다( $p<0.001$ ).



**표 6.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

변수		직무만족				P-value
		만족		보통 이하		
		N	%	N	%	
성별	남성	394	57.02	297	42.98	0.176
	여성	197	61.76	122	38.24	
연령	15~29세	73	70.87	30	29.13	0.003
	30~39세	121	62.37	73	37.63	
	40~49세	205	60.29	135	39.71	
	50~59세	122	51.91	113	48.09	
	60~71세	70	50.72	68	49.28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3	41.73	74	58.27	<0.001
	고등 학교 졸업	222	53.24	195	46.76	
	대학 졸업 이상	316	67.81	150	32.19	
장애 정도	심한 장애	191	59.32	131	40.68	0.775
	심하지 않은 장애	400	58.14	288	41.86	
회사 규모	1~99명	466	56.14	364	43.86	0.003
	100~299명	66	66.67	33	33.33	
	300명 이상	59	72.84	22	27.16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27	64.02	240	35.98	<0.001
	임시근로자	143	50.71	139	49.29	
	일용근로자	21	34.43	40	65.57	
소득	100만원 미만	52	40.62	76	59.38	<0.001
	100~199만원	112	50.00	112	50.00	
	200~299만원	194	57.91	141	42.09	
	300만원 이상	233	72.14	90	27.86	
근무시간	1~4시간	57	47.90	62	52.10	<0.001
	5~8시간	447	64.04	251	35.96	
	9시간 이상	87	45.08	106	54.92	
근무환경의 안전성	위험	36	28.57	90	71.43	<0.001
	안전	555	62.78	329	37.22	
근무환경의 쾌적성	불쾌	68	30.91	152	69.09	<0.001
	쾌적	523	66.20	267	33.80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많음	138	44.37	173	55.63	<0.001
	적음	453	64.81	246	35.1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음	223	50.80	216	49.20	<0.001
	많음	368	64.45	203	35.55	

### 3.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 1)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표 7은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1은 변수 통제 없이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모델2에서는 모델1에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장애정도 추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델3에서는 모델2에 직업적 특성인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을 추가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근무환경에 관한 비교군은 근무환경의 안전성이 ‘위험’인 경우, 근무환경의 쾌적성이 ‘불쾌’인 경우,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가 ‘많음’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적음’인 경우이다.

근무환경의 안전성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안전한 근무환경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3.61로 높게 나타났다(OR 3.61, 95% CI 2.59-5.04).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05로 높았으며(OR 3.05, 95% CI 2.16-4.31),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3.24로 높았다(OR 3.24, 95% CI 2.26-4.65).

근무환경의 쾌적성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쾌적한 근무환경은 불쾌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3.79로 높게 나타났다(OR 3.79, 95% CI 2.90-4.96).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5로 높았으며(OR 3.25, 95% CI 2.46-4.30),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3.03으로 높았다(OR 3.03, 95% CI 2.27-4.04).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와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위험 요소가 적은 환경이 위험 요소가 많은 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2.2로 높게 나타

났다(OR 2.20, 95% CI 1.75-2.78).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05로 높은 직무만족을 보였으며(OR 2.05, 95% CI 1.62-2.61),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2.23으로 높았다(OR 2.23, 95% CI 1.74-2.87).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된 근무환경이 편의시설이 적게 설치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1.88로 높게 나타났다(OR 1.88, 95% CI 1.51-2.34).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1.69로 오즈비가 높게 나타났으며(OR 1.69, 95% CI 1.35-2.13),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1.51로 높았다(OR 1.51, 95% CI 1.18-1.92).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위험 요소가 적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환경이 직무만족과 긍정적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표 7.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근무환경 요인		모델1	모델2	모델3
근무환경의 안전성	위험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안전	<b>3.61 (2.59-5.04)</b>	<b>3.05 (2.16-4.31)</b>	<b>3.24 (2.26-4.65)</b>
근무환경의 쾌적성	불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쾌적	<b>3.79 (2.90-4.96)</b>	<b>3.25 (2.46-4.30)</b>	<b>3.03 (2.27-4.04)</b>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많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적음	<b>2.20 (1.75-2.78)</b>	<b>2.05 (1.62-2.61)</b>	<b>2.23 (1.74-2.87)</b>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많음	<b>1.88 (1.51-2.34)</b>	<b>1.69 (1.35-2.13)</b>	<b>1.51 (1.18-1.92)</b>

\* 모델1: 근무환경(요인별 분석), 모델2: 모델1+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장애정도),  
모델3: 모델2+직업적 특성(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

## 2)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표 8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1은 변수 통제 없이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모델2에서는 모델1에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장애정도 추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델3에서는 모델2에 직업적 특성인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을 추가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근무환경에 관한 비교군은 근무환경의 안전성이 ‘위험’인 경우, 근무환경의 쾌적성이 ‘불쾌’인 경우,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가 ‘많음’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적음’인 경우이다.

근무환경의 안전성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안전한 근무환경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2.44로 높게 나타났다(OR 2.44, 95% CI 1.35-4.38).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62로 높았으며 (OR 2.62, 95% CI 1.41-4.88),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3.02로 높았다(OR 3.02, 95% CI 1.54-5.93).

근무환경의 쾌적성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쾌적한 근무환경은 불쾌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2.52로 높게 나타났다(OR 2.52, 95% CI 1.53-4.16).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51로 높았으며 (OR 2.51, 95% CI 1.48-4.25),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2로 높았다(OR 2.00, 95% CI 1.13-3.57).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와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위험 요소가 적은 환경이 위험 요소가 많은 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1.83으로 높게 나타났다(OR 1.83, 95% CI 1.16-2.90).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1.92로 높았으며(OR 1.92, 95% CI 1.18-3.13),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1.95로 높았다(OR 1.95, 95% CI 1.14-3.3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된 근무환경이 편의시설이 적게 설치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2.19로 높게 나타났다(OR 2.19, 95% CI 1.38-3.49).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오즈비가 1.99로 높았다(OR 1.99, 95% CI 1.21-3.25).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오즈비가 1.64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OR 1.64, 95% CI 0.94-2.85).

표 8.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근무환경 요인		모델1	모델2	모델3
근무환경의 안전성	위험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안전	<b>2.44 (1.35-4.38)</b>	<b>2.62 (1.41-4.88)</b>	<b>3.02 (1.54-5.93)</b>
근무환경의 쾌적성	불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쾌적	<b>2.52 (1.53-4.16)</b>	<b>2.51 (1.48-4.25)</b>	<b>2.00 (1.13-3.57)</b>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많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적음	<b>1.83 (1.16-2.90)</b>	<b>1.92 (1.18-3.13)</b>	<b>1.95 (1.14-3.34)</b>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많음	<b>2.19 (1.38-3.49)</b>	<b>1.99 (1.21-3.25)</b>	1.64 (0.94-2.85)

\* 모델1: 근무환경(요인별 분석), 모델2: 모델1+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장애정도),  
모델3: 모델2+직업적 특성(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

### 3)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표 9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1은 변수 통제 없이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모델2에서는 모델1에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장애정도 추가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델3에서는 모델2에 직업적 특성인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을 추가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근무환경에 관한 비교군은 근무환경의 안전성이 ‘위험’인 경우, 근무환경의 쾌적성이 ‘불쾌’인 경우,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가 ‘많음’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적음’인 경우이다.

근무환경의 안전성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안전한 근무환경은 위험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4.22로 높게 나타났다(OR 4.22, 95% CI 2.80-6.35).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오즈비가 3.45로 높았으며(OR 3.45, 95% CI 2.25-5.28),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3.53으로 높았다(OR 3.53, 95% CI 2.27-5.49).

근무환경의 쾌적성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쾌적한 근무환경은 불쾌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4.38로 높게 나타났다(OR 4.38, 95% CI 3.17-6.04).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오즈비가 3.74로 높았으며(OR 3.74, 95% CI 2.68-5.23),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3.42로 높았다(OR 3.42, 95% CI 2.42-4.84).

근무환경의 위험한 정도와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위험 요소가 적은 환경이 위험 요소가 많은 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2.31로 높게 나타났다(OR 2.31, 95% CI 1.76-3.03).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오즈비가 2.17로 높았으며(OR 2.17, 95% CI 1.64-2.87),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



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2.36으로 높았다(OR 2.36, 95% CI 1.76-3.17).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된 근무환경이 편의시설이 적게 설치된 근무환경에 비해 오즈비가 1.76으로 높게 나타났다(OR 1.76, 95% CI 1.36-2.26). 모델2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오즈비가 1.6으로 높았으며(OR 1.60, 95% CI 1.23-2.08), 모델3에서 직업적 특성까지 추가 통제한 후에도 1.36으로 높았다(OR 1.36, 95% CI 1.03-1.81).

**표 9.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

근무환경 요인		모델1	모델2	모델3
근무환경의 안전성	위험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안전	<b>4.22 (2.80-6.35)</b>	<b>3.45 (2.25-5.28)</b>	<b>3.53 (2.27-5.49)</b>
근무환경의 쾌적성	불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쾌적	<b>4.38 (3.17-6.04)</b>	<b>3.74 (2.68-5.23)</b>	<b>3.42 (2.42-4.84)</b>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많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적음	<b>2.31 (1.76-3.03)</b>	<b>2.17 (1.64-2.87)</b>	<b>2.36 (1.76-3.17)</b>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음	1.00 (reference)	1.00 (reference)	1.00 (reference)
	많음	<b>1.76 (1.36-2.26)</b>	<b>1.60 (1.23-2.08)</b>	<b>1.36 (1.03-1.81)</b>

\* 모델1: 근무환경(요인별 분석), 모델2: 모델1+개인적 특성(성별, 나이, 학력, 장애정도),  
 모델3: 모델2+직업적 특성(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소득, 근무시간)

## IV. 고 찰

본 연구는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무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할수록, 위험 요소가 적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7). 이와 같은 결과는 제조업에서는 개인적 특성을, 서비스업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표 8, 9). 특히 안전성과 쾌적성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 요소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의한 변수였으나(이민아, 2019), 본 연구에서는 오즈비가 다른 근로환경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69.66%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누어 근로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 직무만족에 더 높은 관련이 있는 근무환경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조업 종사자에게는 근무환경의 안전성이,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안전성 뿐만 아니라 쾌적성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이 기계, 소음, 사고 등 물리적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감정노동이 많아 정서적 쾌적성이나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적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훈, 2011; 정다이, 2023).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특성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적 특성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종사상 지위가 안정될수록, 소득이 높고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할 때, 근로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직무만족이 높았다(표 4).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를 비교해 볼 때 제조업에서는 고령층, 저학력, 일용근로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때 특히 낮은 직무만족 수준을 보였으며(표 5), 서비스업 종사자는 저소득층, 근무환경이 위험하고 불쾌할 때 직무만족이 더 낮았다. 두 산업군 간의 비교를 통해 직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 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근무환경에 대한 응답은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부록 표 1~6). 상용근로자와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고소득자, 적정 근무시간 근로자는 근무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반면, 일용직,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장시간 근무자들은 대부분의 근무환경을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취약한 직업 조건이 근무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직무만족의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직무만족에 있어 근무환경이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박자경, 김종진, 강용주, 2010; 김지원, 2017; 한미란, 최인화, 2023)과 일치한다. 또한, 근무환경을 안전성, 쾌적성, 장애인 편의시설로 구분하여 분석한 접근은 오지원 등(2021), 도지혜 등(2020)의 연구와 유사하다.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현규 등(2018)의 연구는 열악한 작업환경,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 제조업 근로자가 근무환경의 안전성이 직무만족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김진호 등(2017)은 서비스업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근무환경 실태를 확인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감정노동 강도가 높고 업무 자율성이 낮아 근무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장시간 근무자가 근무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와 유사하다.

연구의 표본 분포 또한 실제 고용 현황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제조업 종사자는 20.69%, 서비스업 종사자는 68.52%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4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의 제조업 14.29%, 서비스업 73.32% 비율, 그리고 202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제조업 15.88%, 서비스업 71.41% 비율과 유사하여 연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여준다.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산업별 특성과 더불어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조업 종사자에게는 물리적 안전성이 핵심 요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의 예방, 안전 장비 확충, 기계적 위험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중점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안전성과 더불어 쾌적한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에 해당하므로 조명, 환기 등 기본 쾌적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통적으로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가 적고, 장애인 편의 시설이 많은 근무환경은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근무환경의 위험 요인 관리, 장애 친화적 환경설계를 위한 표준화 제도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이소영, 2025).

더불어, 직업적 특성에 따라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에서 단순한 근무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고용 형태의 안정화, 적정 근무시간의 확보,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 등 직업적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횡단적 자료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설문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보고 방식의 자료로 응답자의 인식이나 기억에 따라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문화, 상사 및 동료 관계, 직무적합도 등 사회심리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분석 대상이 한국의 장애인 임금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비장애인 또는 전체인구 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나 직무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 및 산업군을 포함하고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근로자나 전체 근로자 집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상대적 직무만족 수준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자료나 질적 연구를 병행하거나, 종단적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산업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무환경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근무환경을 안전성, 쾌적성,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구성하였으며,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근무환경의 모든 요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할수록, 위험 요소가 적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근무환경의 안전성이, 서비스업 근로자의 경우 안전성과 쾌적성이 직무만족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상용근로자,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 적정시간 근무자 등 직업적 조건이 안정적일수록 근무환경 인식과 직무만족 수준이 높았다. 반대로 일용직, 소규모 사업체, 장시간 근무자는 근무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직무만족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과 더불어 직업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제조업은 물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설비 강화가, 서비스업은 쾌적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한 직업 조건을 가진 근로자를 우선 고려한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설명하는데 있어 근무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산업별 차이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종단적 자료와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자. 취업 장애인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Disabled Employees). 장애와 고용 2011;21(2):189-216.
- 김민영.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017;27(1):177-202.
- 김복일. 외식업체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수원: 경기대학교; 2006.
- 김수진. 장애인임금근로자의 고용 질과 직무만족 및 고용유지 관계 연구[석사 학위 논문]. 경산: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4.
- 김언아, 김용탁, 김원호, 김호진, 박종빈, 박혜원, 백영은, 심진예, 안태희, 유은주, 이정주, 전영환, 최종철. [정책연구2020-06]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전망. 연구자료 2021;(1):39-47.
- 김지원. 기업체 근로환경 특성이 장애인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017;51(2):157-84.
- 김진호, 이충원. 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환경 실태와 근무사기에 관한 연구. 감성과학 2017;20(2):103-16.



김현규, 서유리, 조교영.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018;29(6):1555-63.

김훈. 제조업종의 산재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 논문]. 서울: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2011.

남수정, 박은영. 근로 장애인 직무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예측요인. 장애와  
고용2013;23(1):37-53.

도지혜, 유은영. 근로환경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20;28(3):83-95.

박자경, 김종진, 강용주. 장애인 근로자 직무만족도 분석. 장애와 고용  
2010;20(1):5-32.

백영은, 배현주. [고용연구2024-05]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 연구. 연구  
자료 2024:1-195.

오지원, 여영훈. 근로 장애인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장애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021;52(52):7-32.

이민아, 신혜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근무환경의  
지각된 안전의 매개효과. 장애와 고용 2019;29(3):5-30

이소영, 오명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논문집 2025;34(1):129-138.

이용원. 근로환경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결근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 논문].  
김해: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정다이. 서비스업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023;(1)5-2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장애인 통계, 2024.

한미란, 최인화. 대졸 근로장애인의 직무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장애인복지연구 2023;14(1):56-93.

Roessler RT. Improving Job Tenure Outcom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3M Model.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002;45(4):207.

## 부 록

### 추가 통계자료(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 1)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부록의 표 1과 2는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며, 근무환경에 대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회사 규모에 따라 근무환경의 쾌적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0.002$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해당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안전성( $p<0.001$ ), 쾌적성( $p<0.00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고, 일용근로자는 가장 낮았다.

소득에 따라서는 근무환경의 안전성( $p=0.017$ )과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p=0.01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부 항목에서 소득 수준이 근무환경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근무시간은 모든 근무환경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안전성  $p<0.001$ , 쾌적성  $p=0.013$ ,  $p=0.004$ , 편의시설 설치  $p<0.001$ ). 9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자는 위험 요소가 많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부록 표 1.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근무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의 안전성					근무환경의 쾌적성				
		위험		안전		P-value	불쾌		쾌적		P-value
		N	%	N	%		N	%	N	%	
회사규모	1~99명	152	14.53	894	85.47	0.450	269	25.72	777	74.28	0.002
	100~299명	20	14.71	116	85.29		30	22.06	106	77.94	
	300명 이상	14	10.53	119	89.47		16	12.03	117	87.97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23	13.34	799	86.66	<0.001	179	19.41	743	80.59	<0.001
	임시근로자	37	11.75	278	88.25		91	28.89	224	71.11	
	일용근로자	26	33.33	52	66.67		45	57.69	33	42.31	
소득	100만원 미만	18	11.84	134	88.16	0.017	45	29.61	107	70.39	0.051
	100~199만원	22	8.56	235	91.44		66	25.68	191	74.32	
	200~299만원	71	16.36	363	83.64		110	25.35	324	74.65	
	300만원 이상	75	15.89	397	84.11		94	19.92	378	80.08	
근무시간	1~4시간	9	6.98	120	93.02	<0.001	34	26.36	95	73.64	0.013
	5~8시간	122	12.86	827	87.14		208	21.92	741	78.08	
	9시간 이상	55	23.21	182	76.79		73	30.80	164	69.20	

부록 표 2.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P-value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value
		많음		적음			적음		많음		
		N	%	N	%		N	%	N	%	
회사규모	1~99명	350	33.46	696	66.54	0.910	535	51.15	511	48.85	<0.001
	100~299명	45	33.09	91	66.91		48	35.29	88	64.71	
	300명 이상	42	31.58	91	68.42		32	24.06	101	75.9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06	33.19	616	66.81	0.054	409	44.36	513	55.64	<0.001
	임시근로자	96	30.48	219	69.52		149	47.30	166	52.70	
	일용근로자	35	44.87	43	55.13		57	73.08	21	26.92	
소득	100만원 미만	39	25.66	113	74.34	0.015	77	50.66	75	49.34	0.654
	100~199만원	76	29.57	181	70.43		121	47.08	136	52.92	
	200~299만원	166	38.25	268	61.75		205	47.24	229	52.76	
	300만원 이상	156	33.05	316	66.95		212	44.92	260	55.08	
근무시간	1~4시간	33	25.58	96	74.42	0.004	57	44.19	72	55.81	<0.001
	5~8시간	306	32.24	643	67.76		396	41.73	553	58.27	
	9시간 이상	98	41.35	139	58.65		162	68.35	75	31.65	

## 2)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부록의 표 3와 4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며, 근무환경에 대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과 피셔의 정확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회사 규모에 따라 근무환경의 쾌적성( $p=0.006$ )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쾌적성( $p<0.001$ )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0.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가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인 반면 일용근로자는 부정적 응답률을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근무환경의 안전성( $p=0.01$ )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0.007$ )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소득은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중간 소득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편의시설 설치( $p=0.001$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1~4시간 근무장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9시간 이상 근무자는 가장 낮았다.

부록 표 3.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근무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의 안전성					근무환경의 쾌적성				
		위험		안전		P-value	불쾌		쾌적		P-value
		N	%	N	%		N	%	N	%	
회사규모	1~99명	47	21.76	169	78.24	0.352	78	36.11	138	63.89	0.006
	100~299명	5	13.51	32	86.49		10	27.03	27	72.97	
	300명 이상	8	15.38	44	84.62		7	13.46	45	86.5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48	18.82	207	81.18	0.080	71	27.84	184	72.16	<0.001
	임시근로자	5	15.15	28	84.85		11	33.33	22	66.67	
	일용근로자	7	41.18	10	58.82		13	76.47	4	23.53	
소득	100만원 미만	2	8.33	22	91.67	0.010	3	12.50	21	87.50	0.060
	100~199만원	1	3.03	32	96.97		10	30.30	23	69.70	
	200~299만원	22	22.22	77	77.78		39	39.39	60	60.61	
	300만원 이상	35	23.49	114	76.51		43	28.86	106	71.14	
근무시간	1~4시간	1	10.00	9	90.00	0.902	1	10.00	9	90.00	0.210
	5~8시간	50	19.92	201	80.08		77	30.68	174	69.32	
	9시간 이상	9	20.45	35	79.55		17	38.64	27	61.36	

부록 표 4. 제조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P-value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value
		많음		적음			적음		많음		
		N	%	N	%		N	%	N	%	
회사규모	1~99명	95	43.98	121	56.02	0.22	145	67.13	71	32.87	<0.001
	100~299명	15	40.54	22	59.46		16	43.24	21	56.76	
	300명 이상	16	30.77	36	69.23		15	28.85	37	71.15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01	39.61	154	60.39	0.125	139	54.51	116	45.49	0.005
	임시근로자	14	42.42	19	57.58		21	63.64	12	36.36	
	일용근로자	11	64.71	6	35.29		16	94.12	1	5.88	
소득	100만원 미만	7	29.17	17	70.83	0.156	13	54.17	11	45.83	0.007
	100~199만원	10	30.30	23	69.70		18	54.55	15	45.45	
	200~299만원	48	48.48	51	51.52		71	71.72	28	28.28	
	300만원 이상	61	40.94	88	59.06		74	49.66	75	50.34	
근무시간	1~4시간	4	40.00	6	60.00	0.875	3	30.00	7	70.00	0.001
	5~8시간	102	40.64	149	59.36		140	55.78	111	44.22	
	9시간 이상	20	45.45	24	54.55		33	75.00	11	25.00	



### 3)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

부록의 표 5과 6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며, 근무환경에 대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근무환경의 쾌적성( $p=0.04$ )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쾌적성 및 편의시설 설치의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1~99인 사업체는 각각 76.99%, 53.01%로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는 근무환경의 안전성( $p<0.001$ ), 쾌적성( $p<0.001$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0.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률이 높았고, 일용근로자는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에서는 근무환경의 쾌적성( $p=0.001$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쾌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근무시간은 모든 근무환경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안전성  $p<0.001$ , 쾌적성  $p=0.002$ , 위험 요소  $p=0.003$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0.001$ ). 9시간 이상 근로자는 각 항목에서 부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부록 표 5.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근무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의 안전성				P-value	근무환경의 쾌적성				P-value
		위험		안전			불쾌		쾌적		
		N	%	N	%		N	%	N	%	
회사규모	1~99명	105	12.65	725	87.35	0.28	191	23.01	639	76.99	0.04
	100~299명	15	15.15	84	84.85		20	20.20	79	79.80	
	300명 이상	6	7.41	75	92.59		9	11.11	72	88.8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5	11.24	592	88.76	<0.001	108	16.19	559	83.81	<0.001
	임시근로자	32	11.35	250	88.65		80	28.37	202	71.63	
	일용근로자	19	31.15	42	68.85		32	52.46	29	47.54	
소득	100만원 미만	16	12.50	112	87.50	0.335	42	32.81	86	67.19	0.001
	100~199만원	21	9.37	203	90.63		56	25.00	168	75.00	
	200~299만원	49	14.63	286	85.37		71	21.19	264	78.81	
	300만원 이상	40	12.38	283	87.62		51	15.79	272	84.21	
근무시간	1~4시간	8	6.72	111	93.28	<0.001	33	27.73	86	72.27	0.002
	5~8시간	72	10.32	626	89.68		131	18.77	567	81.23	
	9시간 이상	46	23.83	147	76.17		56	29.02	137	70.98	

부록 표 6. 서비스업 종사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근무환경(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직업적 특성		근무환경의 위험 요소				P-value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P-value
		많음		적음			적음		많음		
		N	%	N	%		N	%	N	%	
회사규모	1~99명	255	30.72	575	69.28	0.961	390	46.99	440	53.01	<0.001
	100~299명	30	30.30	69	69.70		32	32.32	67	67.68	
	300명 이상	26	32.10	55	67.90		17	20.99	64	79.0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05	30.73	462	69.27	0.289	270	40.48	397	59.52	<0.001
	임시근로자	82	29.08	200	70.92		128	45.39	154	54.61	
	일용근로자	24	39.34	37	60.66		41	67.21	20	32.79	
소득	100만원 미만	32	25.00	96	75.00	0.134	64	50.00	64	50.00	0.211
	100~199만원	66	29.46	158	70.54		103	45.98	121	54.02	
	200~299만원	118	35.22	217	64.78		134	40.00	201	60.00	
	300만원 이상	95	29.41	228	70.59		138	42.72	185	57.28	
근무시간	1~4시간	29	24.37	90	75.63	0.003	54	45.38	65	54.62	<0.001
	5~8시간	204	29.23	494	70.77		256	36.68	442	63.32	
	9시간 이상	78	40.41	115	59.59		129	66.84	64	33.16	

**= ABSTRACT =**

**Working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Hye-Ji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n-Ha Yoon, M.D., Ph.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1,315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using data from the 2023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2nd wave, 8th survey).

The working environment was assessed in four areas: safety, comfort, hazard exposure, and the availability of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while progressively adjusting for person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Findings indicated that all four aspects of the working environment were significantly linked to job satisfaction. For manufacturing workers, safe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ereas for service workers, both safety and comfort were key contributors. Workers with stable employment conditions—such as permanent positions, employment in large enterprises, and standard working hours—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ir working environments positively and report higher job satisfaction. In contrast, day laborers, those employed in small enterprises, and individuals working long hours tended to report more negative perceptions and lower levels of job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rceptions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vary according to occupational condition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targeted improvements in the working environment that consider industry- and job-specific factors and offers a foundation for policy initiatives aimed at improving the well-being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

**Key words** :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Job satisfaction, Working environment, Manufacturing industry, Service industry